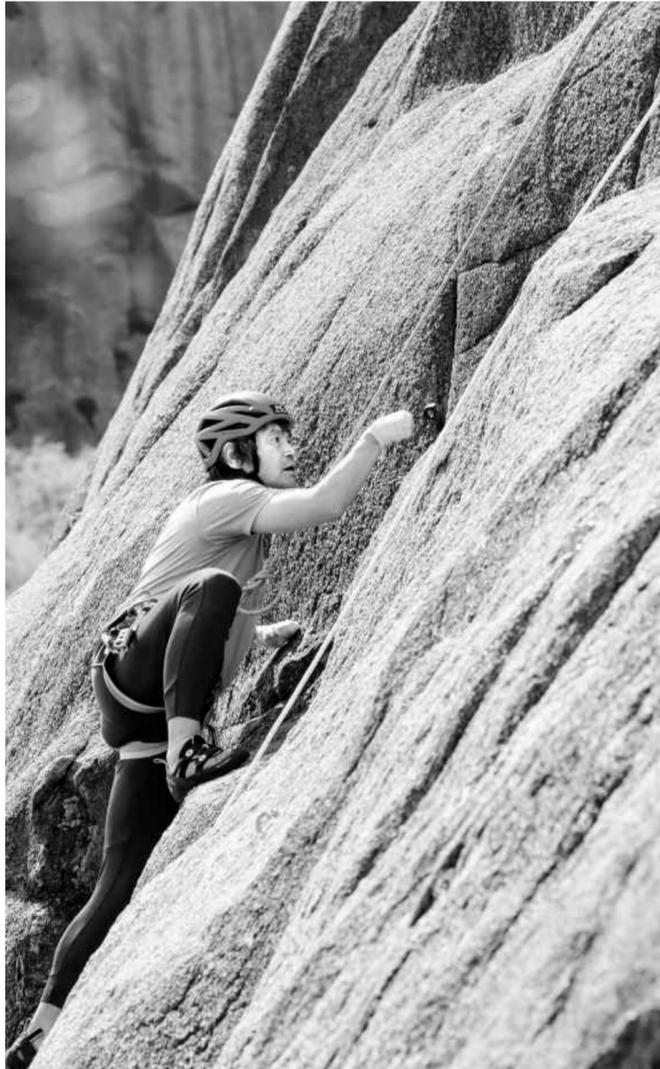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대한민국에 희망 전하겠다”



김홍빈 대장이 지난 11일 영암 월출산 시루봉에서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

히말라야 14좌 완등 브로드피크 원정 앞둔 김홍빈 대장

지난해 도전 코로나에 막혔지만 올해 불굴의 재도전
매월 한차례씩 체력·기술훈련 병행하며 원정 준비
6월 10일 출발 앞두고 영암 월출산 시루봉서 맹연습

“코로나19에도 좌절하지 않고 꼭 가겠다는 희망으로 1년을 버텼다. 반드시 브로드피크 정상에 오르겠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6) 대장이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에 브로드피크(Broad peak·8047m) 정상에 오르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여정이니 15년만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지난 해 원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원정을 연기해야 했기에 등정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깊다.

지난 11일 영암 월출산 중턱의 시루봉에서 암벽 훈련을 하고 있는 김 대장과 원정 대원들을 만났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씩 만년 전국의 유명 산악 훈련지 등에서 체력훈련과 기술 훈련을 병행하며 원정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6월 10일 출발을 예정하고 있는 ‘2021브로드피크(8047m)원정대’는 김

대장을 비롯해 피길연(부단장겸 추진위원장), 류재강(등반대장), 정우연(장비·식량), 정득채(수송), 허근(포장), 김성심(의료), 박성민(식량), 나정희(촬영·기록) 대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원정대의 활동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한 방송사 프로듀서와 촬영감독도 동참한다.

김 대장의 등정지는 결연하다.

“1년 동안 더 철저히 준비 했어요. 동계철에는 강원도 등지에서 스키타고, 하계에는 자전거로 기초 체력을 길렀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배드민턴을 배웠는데 손가락 없는 사람이 하는 배드민턴을 본적 없죠.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꾸준한 훈련 덕분에 체중도 5kg 정도 줄어 암벽을 오르는 그의 몸놀림이 가볍다.

김홍빈 대장의 도전은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6194m) 등정 도중 손가락을 잃은 후부터 시작됐다.

이후 김 대장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7대륙 최고봉 완등에 성공했고



시루봉 정상에 오른 2021 브로드피크원정대.

2006년부터 히말라야 8000m 급 고봉들을 차례로 올라섰다.

그동안 모든 원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여파로 더 힘든 원정이 될 것이라 김 대장은 예상하고 있다.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들어가는 항공편은 직항이 없고 경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태국을 경유해서 24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다 막혀버렸어요. 그나마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동 시간만 48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항공비 및 물류비용이 2배 이상 늘어 경제·육체적으로 어려움

이 따릅니다.” 파키스탄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해서도 그는 “약 2주간에 걸쳐 이동하는 베이스캠프에도 셰르파 등의 현지인들과 과도 최대한 접촉을 멀리하며 움직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홍빈 대장은 이어 “지금까지의 내도 전들이 손가락을 잃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무의미했을 것이다. 장애를 갖고 부터 비장애 산악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올라 지금까지 왔다. 반드시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서서 코로나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응원하고 희망을 전하겠다”며 등정의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병무청, 곡성 '병역명문가 문패 달기' 행사

최규석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최근 곡성군 오산면 신중윤씨 집을 방문해 '병역명문가 문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병무청이 병역명문가문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시작됐다. 곡성군은 이 사업에 뜻을 같이

했다.

문패를 전달 받은 신중윤 가문은 2013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신중윤 가문은 6·25 참전용사인 1대를 포함해 총 4명이 139개월간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불발한 신선놀음 스페셜	10 SBS 뉴스 30 특집 삼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와이드 맵 플러스 50 불편해도 괜찮아 55 한국의 인류유산	00 달이 뜨는 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스(재)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주 별의여신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박미선과 돈뒤리 돈해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0 2021 올트 전국 휠체어농구대회 결승전		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장애인의 날 특집 다큐 순례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2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아무튼 출근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15 불타는 청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장애인의 날 특집 다큐 오늘도 출근 스페셜	
[12]	10 장애인의 날 기획 KBS결착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컴백(재)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5 나이트라인 35 닥터 365 40 네모세모(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35 포텐독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7: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07:15 미니특강대 슈퍼다이너7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30 두다다쿵	14:10 EBS 다큐프라임	19:35 자이언트 팽TV
07:45 속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19:50 극한직업
08:00 딩동댕 유치원	15:15 클래식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출동! 슈퍼윙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웰컴 투 아일랜드 -지중해 로맨스, 그리스>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21:30 한국기행
09:00 뽕뽕뽕 뽕로로	16:0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불널엔 트로트지 2부 땀! 트로트 스타!>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마사와 노래해요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0일 (음 3월 9일 戊戌)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중요한 것이 해결되면 부수적인 것은 자연히 그에 따른다. 48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60년생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72년생 애써 시도 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리라. 84년생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 96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4, 58</p> <p>丑</p> <p>37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다. 49년생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이다. 61년생 환경된 조건 하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느라고 고민하리라. 73년생 장래의 김홍을 좌우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도다. 85년생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해 있느니라. 97년생 단순 판단한다면 의외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89</p> <p>寅</p> <p>38년생 성취를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50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부르게 될 것이다. 62년생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중국적인 결과는 같다. 74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에따른 화도 비껴갈 것이다. 86년생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버리고 확실히 전환해 보자. 98년생 각자 달라서 일정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87, 70</p> <p>卯</p> <p>39년생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1년생 일시적인 현상이 불과하므로 개의치 말라. 63년생 원한된 취할 가능성이 높다. 75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니 포착하는데 민첩하라. 87년생 일회성이거나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99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04, 73</p> <p>辰</p> <p>40년생 절대로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 52년생 서로 응하여 융합하게 되는 기쁨이 상당하다. 64년생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76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낫다. 88년생 넓은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리라. 행운의 숫자 : 25, 93</p> <p>巳</p> <p>41년생 동기 부여가 절실한 마당이다. 53년생 확실히 분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잘 모른다면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77년생 내버려둬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89년생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계획과 설계를 해야겠다. 01년생 변화무쌍한 성취이니 순발력이 절실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53</p>	<p>午</p> <p>42년생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만 타인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는다. 54년생 느낌보다는 사실상 정황에 비추어 봐야 한다. 66년생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옳다. 78년생 많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느니라. 90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02년생 평생토록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40, 97</p> <p>未</p> <p>43년생 안금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55년생 장기적인 동력원이 되어 줄 것이다. 67년생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풀이 나갈 수 있느니라. 79년생 파상적인 현상일 뿐이니 무시해도 된다. 91년생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국세이니라. 03년생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65</p> <p>申</p> <p>32년생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44년생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56년생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도다. 68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80년생 사려 깊어 처리해야겠다. 92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하다. 행운의 숫자 : 01, 60</p> <p>酉</p> <p>33년생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45년생 판단을 쉽게만 본다면 많은 취약점들을 간과하게 되느니라. 57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둔다. 69년생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다. 81년생 한 가지만 해결되면 연쇄적인 효과가 된다. 93년생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8, 75</p> <p>戌</p> <p>34년생 순리에 따른다면 거리가 멀지 않으리라. 46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버린다면 만사가 길해진다. 58년생 머지않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려라. 70년생 일시적으로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82년생 충정하는 기세로 크게 번창 하리라. 94년생 오만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42, 56</p> <p>亥</p> <p>35년생 급변으로 인한 충격이 보인다. 47년생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보인다. 59년생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모순이다. 71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치열하고 치밀하게 살아가야 할로가 트인다. 83년생 소모적임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95년생 완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17, 98</p>
--	---